

大學教授와 研究活動

鄭 在 哲

(中央大 師範大 學長)

I. 머리말

이 글은 오늘날의 大學教授들의 수많은 機能과 役割 가운데 특히 研究活動에 초점을 맞추어 教授 스스로가 意識하고 行動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약간의 論議와 함께 問題提起를 해 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論議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의도는 서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大學教授를 포함한 現代의 大學教授의 現位置를 확인해 보는 意識의 문제와 研究 및 教育活動을 적극화시켜야 한다는 行爲에 관한 反省的 言及이 다분히 潜在된다. 反省的 言及이라는 낱말이 筆者 自身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教授의 研究活動을 提高시키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提言도 試圖하지 않을 수 없다.

II. 研究와 教育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옛부터 大學에는 「教育」과 「研究」라고 하는 두 가지 機能이 있어 왔다. 그것은 大學이 새로운 指導者와 研究者를 여러 방면에 끊임없이 공급하는 최고의 教育機關인 동시에 그 자신 高度한 研究機關으로서 學術研究에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學教育에 종사하는 教授를 세상에서는 「研

究者인 동시에 教育者」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F.E.D. Schleiermacher는 「학교는 그 主眼을 教育에, 대학은 그 主眼을 교육과 연구에 같이 두어야 하며, 아카데미는 연구에 主眼을 두어야 한다」(1808年)고 했다. 또 영국의 教育改革을 제안한 Robbins Report에서는 「교육과 연구 사이에 境界線은 전연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相互補助的인 동시에 重複되는 활동이다. 擔當教科에 관한 知識을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教授는 스스로 教授로서의 研究를 게을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既存의 知識을 스스로의 研究 礎石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研究者란 講義를 준비함에 있어 그의 個人的 研究가 새로운 관점에서 教科를 조직하는데 도움이 되고 신선하고도 적절한 설명을 가능케 한다」(1963年)고 논하고 있다.

요컨대 大學에서는 研究와 教育의 分離란 있을 수 없고, 研究와 教育의 一體化, 研究와 教育의 並存, 또는 研究가 教育의 上位에 있어야 한다는 豫定調和說이, 그 差는 있을지언정 옛날의 大學에서나 오늘날의 大學에서나 할 것 없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知識開發의 前線에서 연구에 헌신하는 教授들에 의해서만 大學의 教育活動이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훌륭한 「教育者兼 研究者」라고 하는 大學教授의 理想型이 想定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教育에 몸 바친 教授는 研究와 教育에 묵묵히 종사하는 意識을 높이 가져야 하며 大學當局이나 教育行政當局은 그 무엇보다도 教育體制 및 研究體制的 條件整備을 위한 行政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갖추어진 大學이야말로 진실로 훌륭한 大學인 것이다. 다만 意識이나 行動에 있어 教育과 研究의 두 기능 및 역할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시대에 따라, 교수 개인에 따라, 전공분야에 따라, 大學內에서의 地位에 따라 그리고 大學行政家의 인식에 따라 각각 差가 있을 뿐만 아니라, 大學을 論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論議도 반드시 一義的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大學을 象牙塔視했던 시대에는 教育보다도 學術研究를 중시했고, 低學年이나 初級大學을 담당하는 教授는 研究者로서의 意識은 높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 때문에 研究活動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한 젊은 教授들은 研究者로서의 의욕이 왕성한 반면, 研究能力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年輩의 教授들은 후계자 양성에 더 힘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專攻分野나 大學內에서의 地位面에 있어서도 實技的인 學科나, 研究活動만으로는 實績을 올릴 수 없는 學問分野에서는 研究보다는 教育에 치중하게 될 것이고, 學處長 등 管理職에 취임한 教授들은 研究보다도 教育을 더욱 중시할지도 모른다.

Ⅲ. 現代의 大學教授

오늘날의 大學教授는 大學의 안팎으로부터 수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또한 感覺的이고 行動的이기를 기대당하고 있어 研究에 몰두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大學教授의 本質의 使命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大學教授의 큰 비극이기도 하다.

大學안에서는 講義와 研究 그리고 實驗·實習, 論文의 指導 등 教育 및 研究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할 외에도 이른바 넓은 의미의 「教育的 指導」라는 명목 아래 大學 내지 大學教授의

本質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좀 심하게 말해서 教育的 雜務가 負荷되고 있다. 그 같은 教育的 指導는 教師로서의 教授에게도 초·중등학교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學生들도 教授들이 感覺的이고 行動的이기를 바라는 것 같다. 學生들이 教授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教授를 평가하는 척도로서는 講義를 중등학교에서의 수업처럼 쉽고도 재미 있게 진행시키는 것, 學生들과 더불어 레크리에이션이나 멤버십 트레이닝(membership training) 그리고 여행 등에 참가하거나, 그들의 기분에 맞게 現實問題를 취급하여 고발해 주는 것, 그리고 專門의 研究論文이나 學術的인 著作의 實績보다도 요령 있는 教科書나 時事的(journalistic)이고 論爭的(Controversial)인 論文을 쓰는 能力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 같이 學生에의 迎合이나 人氣를 얻는 것이 참다운 教育이 아니고 教授의 職分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教授에게는 그 같은 指導보다도 講義와 研究에 충실하고 철저해야 할 보다 高次元의 職分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研究의 기능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大學人이 중시하는 그리고 近世 以來 公認된 대학에서의 學問의 自由의 理論的 根據는 研究의 自由, 教授의 自由, 表現의 自由 등이며, 그 가운데서도 研究의 自由가 그 핵심을 이루어 왔다. 만일 大學이 研究機能을 경시하고 教育活動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大學은 초·중등학교의 역할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教授에게는 研究意欲·研究能力·研究行動 그리고 研究業績 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며, 그러므로 해서 大學教授에게는 초·중등학교의 教師들처럼 敎員資格證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大學 밖에서의 教授의 역할과 활동 역시 다양하고 바쁘다. 오늘날의 大學教授들은 自意든 任意든간에 때로는 政府의 최고수준의 企劃者役이나 政策立案者役을 맡기도 하고 産業界와 연배하여 諮問·相談役 심지어는 重役會의 간부로서의 일을 맡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政府機關이나 實業界의 위탁을 맡아 이론적인 助言이

나 실제적인 調査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이들 여러 기관의 諮問에 응하기도 한다. 企劃役(planner) · 相談役(advisor) · 組織役(organizer) · 調整役(coordinator) · 顧問(consultant) 등으로 불리우는 教授들이 그들이다.

또한 教授들은 학술적인 논문을 쓰는 동시에 베스트 셀러의 서적, 통속적인 概說의 집필은 물론, 신문의 칼럼도 쓴다. 각종의 講演會나 講座, 텔레비죤이나 라디오에서의 토론이나 專門的 · 時事的 解說, 그리고 講論 등에도 참가한다. 때로는 정치적 이론을 통해서 사회문제의 先鋒에 서서 여론을 이끌거나 각종의 組織體나 團體의 長 또는 委員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학문의 專門家로 理論家라는 역할이나 지위를 버리고 實踐家가 되어, 政治家가 되거나 高級官僚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들은 넓은 의미의 社會教育의 敎師가 되어 스스로의 信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政治家가 되어 權力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說得당하기도 하는 것 같다.

大學教授에게 요구되는 교사로서의 그리고 研究者로서의 역할과 함께 그들은 理論家, 評論家, 啓蒙家, 政治參與家, 解說者, 知識人, 文化人, 言論人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각종의 활동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바쁘고 때로는 學術會議, 文化交流 등의 이름으로 海外旅行을 자주 하게 되어 어떤 教授들은 그들이 맡은 講座를 同僚에게 代講시켜 講義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大學管理當局이나 學生 그리고 社會로부터 有名教授요, 著名한 學者로 취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저명한 學者는 될지언정 훌륭한 教授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教授는 교단을 지켜야 할「敎師」인 동시에 연구실을 지켜야 할「研究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現代의 大學에는 社會奉仕의 機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教授들의 對外活動이 社會의 理性的 前衛, 學問의 普及 및 傳達者, 機能的인 政策參與者, 良心的인 批判家라는 명분으로 大學構內를 벗어난 그와 같은 종류의 社會教育的 活動도 어떤 의미로는 教授의 역할에 속한

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은 그와 같은 활동이 大學 안에서 소수의 학생을 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社會에서 다수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教育的 活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研究志向의 教授가 아닌 뿐더러, 教育志向의 教授라고는 더욱 할 수 없다.

이렇듯 처음에는 專門의 學問을 연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敎師로 출발한 教授가 研究 또는 教育과는 관계가 적거나 동떨어진 활동 즉 研究放棄狀態로 轉化되어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교수 개개인의 학문에의 立志와 性向과 能力, 그리고 大學理念의 변화와 大學內部的 사정 등에 달려 있겠으나, 그보다는 教授의 일 자체가 여러 면에서 급격히 변하여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몇 가지는 옛부터 있어 왔다고 하겠지만, 가장 넓게 論議될 수 있는 것은 그 대부분이 급속하고도 광범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社會的 變化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겠다.

高度 知識社會, 知識產業社會 또는 情報社會라고 불리우는 現代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고도의 知識과 情報인 것이다. 고도의 知識과 情報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社會的 意味를 갖는 동시에 막대한 利潤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政府나 產業界는 知識源이며 情報源의 하나인 學者나 研究者를 그들의 研究室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研究, 調査, 情報蒐集, 豫測, 計劃, 管理, 開發, 教育, 訓練, 普及 등의 분야에 그들의 知識과 頭腦 그리고 能力을 이용하려고 또한 일부의 大學教授는 각종의 委員이나 顧問이 되어 諮問役 또는 助言者役 등을 맡게 되는 것이다. 학문의 社會的 機能이나 實際的 價値가 증대됨에 따라 學問自體는 일종의 商品化 또는 市場價値化되는 경향이 있다. 發明, 設計, 著作, 特許, 商品推薦, 각종의 諮問 등에 의한 이익을 제산한다면 학문은 때로는 크나큰 이익을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大衆社會에 있어서 學問에의 需要가 커지고, 그것이 大量生産 또는 大量消費라고 하는 市場機能으로 작용한다면 學問을 大衆的 商品으로 조절시키는 研究者나 學者가 나타나게 마련이며, 그들은 大衆을 상대로

學問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政府나 産業界의 요구에 맞추어 이론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봉사하게 된다.

드디어 大學은 社會로부터 격리된 象牙塔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大學이 世俗化되어 감에 따라 超世俗的 脫通俗的인 教授, 다시 말하면 學問의 길 밖에 모르던 선비, 文人墨客, 世上事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學究型的 教授는 오늘날의 大學社會에서 차츰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것 같다.

大學教授를 學者型, 教育者型, 政治家型, 體制順應型, 體制反對者, 小市民型……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時代가 아무리 바뀌어도 大學의 本質的 機能은 研究와 教育에 있다. 그러면 大學에서는 그 어떤 型의 教授가 참다운 大學教授일까?

Ⅳ. 맺는 말

우리들 大學教授는 研究와 教育을 주된 임무로 삼고 그것에 종사하며 生涯를 마치고 마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教授는 授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날그날 자기의 研究에 되도록 많은 시간을 割愛하기 위해서 講義나 研究室 또는 實驗室에 파묻혀 研究에 專念하기를 염원한다. 따라서 研究者로서의 教授는 안정된 研究雰圍氣와 충실한 研究與件을 바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좋은 분위기와 여건이 제공됨으로써 수준 높은 研究結果가 産出되고 충실한 教育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大學은 발전하게 된다. 그와 같은 분위기와 여건은 “教授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경우”와 “남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相互補足的인 것이다. 이하 이 두 部門으로 나누어 나열해 봄으로써 제언에 대신하기로 한다.

1. 教授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研究雰圍氣와 與件

첫째는 研究意識과 態度를 스스로 堅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知的 好奇心과 研究意欲을 스스로 振作시키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研究를 위한 時間과 精力을 스스로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研究와 教育에 無關한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精力의 소모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세째는 研究를 위한 情報交流活動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단체와의 정보교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째는 研究의 自主성과 自律性 維持에 노력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연구에 충실해야 하며 형식에 얽매이거나 타율적인 연구는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共同研究에의 관심과 참여의 문제이다. 이는 교수 개개인의 專攻分野와 性格에 따라 좌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학문 발전과 관련하여 各 學問分野間的 協力研究(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협동, 인내, 공동정신의 함양 등의 美德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는 研究課題의 取得에 過欲하지 말 일이다. 政策當局이나 各種 産業體 등에서 위탁하는 研究課題, 各種의 學術研究助成費 支給 등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 또는 한 研究팀이 일정 기간내에 數件의 研究課題를 담당하게 되어 教育活動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研究의 實效를 거두지 못하는 事例가 있는 것이다.

2. 남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研究雰圍氣와 與件

여기서 말하는 「남」이란 大學當局, 政府, 社會 등을 말하며, 이하에서 나열하는 사항들은 일종의 所望이기도 한 것이다.

첫째는 일정한 職級에 달한 教授들의 身分을 終身制 등으로 보장해 주는 일이다. 研究活動의 安定성과 永繼性을 위한 보장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생활 및 身分保障下에서만 研究와 教育에 專念할 수 있는 教授라는 職業의 特殊性을 고려한 要項인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終身在職權(tenure)과 같

은 제도를 法制化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研究教授制度의 運用을 고려하는 일이다. 이는 研究와 教育과의 調和 또는 向上을 위해서, 그리고 教授의 격증하는 업무부담으로 인한 研究의 低調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教授의 教育活動期間과 研究活動期間과의 정기적인 交替制度, 有給·無給의 研究特別休暇制度 또는 各大學間의 教授交流制度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研究特別休暇制度(sabbatical leave, sabbatical year)등은 참고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는 研究의 氣風을 존중하는 大學風土 造成에 大學의 모든 構成員이 노력하고 동시에 刷新作業을 촉진시켜야 한다. 教授는 대학에서 研究組織을 구성하는 細胞이며 學問과 研究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研究者에 대한 自主성을 보장하고 研究意欲이 왕성한 教授의 研究活動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教育的 雜務로 말미암아 研究할 틈이 없고 스스로 研鑽할 기회를 잃어 研究能力을 상실하는 教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大學의 質 저하와 大學의 危機는 초래될 것이다.

네째로 大學에서의 研究는 純粹基礎研究에 보다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大學에서의 研

究內容은 大學教育의 임무와 相應해서 基礎研究로부터 應用研究에 이르기까지 다기다양하고 체계적이고 독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大學에서의 研究는 그 성격상 卽時的이고 現實的이며 實用的 效果를 낳으려고 서두는 企業體의 研究所의 研究業務와는 달리 보다 純粹基礎研究에 중점이 두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다섯째는 研究業務專擔機構의 地位를 중시하고 그것을 보다 行政的으로 體系化시켜야 할 것이다. 大學內外로부터의 研究助成費 支給, 學外로부터의 用役 또는 委託研究의 알선, 各研究所의 지원, 學術研究物의 간행 등에 대비하여 研究業務를 전담하는 機構의 行政體制를 보다 강화하고 합리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大學內의 各研究所의 業務를 敎學行政으로부터 독립시키고 研究所의 機能化를 위한 支援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는 圖書館의 施設과 藏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實驗實習室의 機械化를 꾀해야 한다.

여덟째는 教授研究室을 완비하는 일이다. 住宅事情으로 艱齊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教授들에게는 研究室의 완비가 절실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다. *